



▣ 다목적 글소리 셈 ▣

◎ 날아 왔습니다 = 비슷 = 등지를 틀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 왜 비슷하나요? 목적이 같으니까.

※ 문단 파악의 열쇠 → 앞 뒤의 문장을 잘 생각하고, 항상 왜 그럴까? (목적, 가리키는 말, 내용 등) 의문을 던지는 습관을 기른다.

※ 다음은 잘못 나눈 형식 문단입니다(×)

	알	록	달	록	한		깃	털	을		가	진		산	새		두		마
리	가		날	아		왔	습	니	다.										
	등	지	를		틀		자	리	를		찾	고		있	었	습	니	다.	

(2) 다음은 잘 나눈 형식 문단입니다.(0)

	장	유	의		앞	에	는		하	얀		눈	세	계	가		펼	쳐	져
있	었	다.		천	지	는		마	치		은	으	로		물	체	를		두
른		등	그	런		거	울		같	았	다.								

◎ 하얀 눈세계 = 비슷 = 마치 은으로  
 ─ 왜 비슷하나요? 눈도 하얗고 은도 하얀니까.

◎ 펼쳐져 있었다. = 비슷 = 물체를 두른 둥그런 거울 같았다.  
 ─ 왜 비슷하나요? 펼쳐진 세상도 둥그렇고, 거울도 둥그러니까.



◎ 걱정을 하는 것 ≠ 다름 ≠ 심술꾸러기가 온 것

↳ 왜 그럴까? 이 때의 ‘이’는 걱정을 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 않, 심술꾸러기가 오면 더 사러 오는 친구가 없을 테니까 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니 줄 바꿈을 해야지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할 것 없어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5) 다음 글을 잘 읽고 형식 문단을 나누어 원고지에 써 보시오.

**연습⑬)** 선생님을 다시 뵈게 되니 기분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선생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선생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

**연습⑭)** 나는 원래 글짓기를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글짓기를 잘 해 상을 받는 걸 보면 매우 부러웠다.

3. 형식 문단 나누기 (2) → 내용이 다르면 줄을 바꿔 써야 한다.

(1) 다음은 잘 나눈 형식 문단입니다.(0)

	그	래	서		나	는		늘		튼	튼	한		운	동		선	수	들
이		부	럽	다	.														
	운	동		선	수	가		되	려	면		연	습	을		많	이		해
야		한	다	.															

◎ 선수들이 부럽다. ≠ 다름 ≠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왜 다르나요? 선수들이 부러운 것과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2) 큰 따옴표(“ ”)와 작은 따옴표( ‘ ’ ) 안에 있는 글은 모두 한 형식 문단으로 생각합니다.

① 다음은 잘 나눈 형식 문단입니다. (O)

	아	머	지	께	서	는		우	리	가		돈	을		어	디	에		쫓
는	지	를		살	펴		보	셨	습	니	다	.							
	“	꼭		써	야		할		데	에	만		쫓	구	나	.	그	럼	
	얼	마	나		쫓	는	지		계	산	해		볼	까	?”				

② 다음은 잘못 나눈 형식 문단입니다.(X)

	토	끼	는		털	에		엉	겨	불	은		끈	적	끈	적	한		것
을		훤	아		보	았	습	니	다	.	“	음	!		꿀	이	잖	아	.
중	은		걸		찾	았	네	.	”										

(3) 다음 글을 잘 읽고 형식 문단을 나누어 원고지에 써 보시오.

**연습⑮)**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는 가난하게 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어린 제자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연습⑯)** 서경덕은 발판을 던고 올라서서 그릇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책을 내려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그릇은 서당 선생님이 일부러 책 위에 올려 놓은 것이었

▣ 다목적 글소리 셈 ▣

습니다. 이 광경을 본 친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서당 선생남도 서경덕의 행동을 여러 번 칭찬하셨습니다.

**연습⑰)**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토끼는 뺨 소리를 지르며 깡충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뭐 요런 게 있지?”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토끼는 그만 오금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것 참 이상하게도 생겼다.”

(4) 작은 따옴표(‘ ’) 중에서 다시 따 온 말과 제목은 한 형식 문단으로 하지 않고 문장 속에 이어 쓴다.

(다시 따 온 말)

	파	브	르	는			‘	스	르	르	룩		스	르	르	룩	’			소	리
가		나	는		곳	으	로		발	걸	음	을		웁	겼	습	니	다	.		

(제목)

	나	는		어	제		어	린	이	날		선	물	로		아	버	지	께
서		사		주	신		‘	숨	은		꽃	’	이	라	는		책	을	
아	주		재	밧	게		읽	었	다	.									

(5) 다음을 잘 읽고 원고지에 옮겨 쓰시오.

**연습⑱)** 국어 사전을 찾으려면 사전의 첫부분에 나와 있는 ‘일러 두기’를 먼저 읽어야 한다.

**연습⑲)** 다른 나무들은 좋은 땅에 뿌리 박고 쑥쑥 자라 키가 큰데, 작은 나무는 바위 틈에 나서 늘 영양 실조로 비실거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못난이 나무’라

고 불렀습니다.

(6) 설명하는 말 가운데 큰 따옴표(“ ”), 즉 대화글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진한 글씨를 잘 살펴 보세요.)

그	러	자	셋	째	도												
“	홍	,	언	니	들	은	아	버	지	의	재	산	을	물	려		
받	고	시	집	을	가	버	리	면	그	만	이	지	만	,	저		
는	시	집	도	안	가	고	아	버	지	와	함	께					
살	거	예	요	.	그	러	니	제	가	재	산	을	제	일			
많	이	물	려	받	아	야	해	요	.”								
하	고	말	하	였	습	니	다	.									

◎ ‘하고 말하였습니다.’는 ‘해요’를 이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하 고’는 첫 칸부터 쓴다.

연습⑳) 다음을 잘 읽고 원고지에 옮겨 쓰시오.

어제는 개교 기념일이었다.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반월 공단에 있는 컴퓨터 회사에 다녀왔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반월 공단은 원래 갯벌 이었다. 바다를 막아, 중소 기업을 위한 공단을 만들었 지. 우리가 찾아가는 컴퓨터 회사는 이 곳 반월 공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란다.”라고 설명해 주셨다.



## 운동장

쏟아지는  
따가운 햇빛에  
까맣게 그을려도,

개구쟁이  
설치는 발끝에  
퍼렇게 멍들어도,

언제나  
웃음 띤 얼굴  
시를 짓는 마음으로,

제  
몸만큼이나  
크고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키워온 운동장,  
어머니 같은 운동장.

뛰노느라  
잊었던 얼굴  
엄마가 보고 싶다.

